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 검사의 활용가능성

김 영 은¹⁾
(경인교육대학교)

I. 서론

아동이 초등학교에서 겪은 최초의 학교 경험은 이후의 학교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인의 심리적 특성, 친구관계, 학업 성취도 등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검증되어 온 변인들은 이미 초등학교 시기에서부터 발견되고 형성되어지는 특성들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은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도 중, 고등학교라는 비슷한 체제의 학교환경에 속하게 된다. 다시 말해 아동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학교라는 구조화된 틀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데, 초등학교의 시기에 부적응 행동의 징후나 문제행동을 진단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그 행동은 중·고등학교에서까지 이어져 심각한 적응 장애로 진전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이 있다면 그 정도를 조기에 판단하고 진단한 후에 주된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동이 현재 그리고 향후에 학교생활을 잘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교사의 학습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보다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적응/부적응 학생 진단 및 지도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는 부적응 아동을 초기에 판별하고, 학교 적응을 지원하여 중·고등학교에서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

1) 인천 동수초등학교 교사

을 것이다. 중·고등학생의 학교적응 현황을 연구한 김광수(2002) 역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촉진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간의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나 특성,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주요 변인을 밝혀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대부분의 담임교사들은 문제행동을 하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응 학생을 관찰이나 면담의 방법을 통해 발견한다. 이러한 학생이 발견되면 대개의 경우 교사는 부적응의 원인을 찾거나 적응을 돕기 위해 가정의 협조를 구하고자 학부모와 상담을 하게 된다. 이때 어떤 면에서는 학부모와 교사가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동의 문제나 행동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바 있다(예, 강명희, 2000; 김영숙, 1975; 이인우, 2003). 교사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동의 평소 생활 태도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학부모는 이 점을 받아들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세보다 우선 그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부인하는 자세를 취하기 쉽다(신옥순, 2002). 이러한 교사, 학부모간 아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전제한다면, 아동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아동행동의 진단결과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가 어느 정도 일치된 합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교사가 아동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동관찰 방법은 구체적이고 자세하여 학급 규칙이나 주변 인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기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관점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척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 자신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아동에 비해 어느 정도로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내용과 결과는 교사와 학부모가 아동을 이해하고 서로 간의 평가의 관점을 어느 정도 일치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발된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검사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의 적응/부적응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개인특성 및 심리적 변인, 부모 혹은 가정 변인, 학업 성취도 등 학교적응에 대한 관련변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용으로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예, 임정순, 1993; 김용래, 2000).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용으로 사용된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검사 중 한 검사를 선정하여 측정결과가 실제로 아동의 적응상태를 예언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검사가 활용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도가 검증된 학교생활 적응관련 검사지 중에 유윤희(1994), 배숙진(1998), 김광수 외(2001) 등이 수정·보완하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바 있는 임정순(1993)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검사지'를 사용하여 검사의 예언타당도를 알아보고, 학교생활적응검사의 활용을 위해 보완할 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용 학교생활적응검사를 통해 학교부적응이 예상되는 학생과 실제 담임이 지각하는 학교부적응 학생이 일치하는가?.

둘째, 학교생활 적응검사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으로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D 초등학교 5, 6학년 10개 학급의 아동 312명을 표집하였다. 검사는 2007년 4월 초에 실시되었고, 회수된 검사지의 응답분포를 살펴본 후 자료수집에 필요한 응답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통계적 분석에 사용된 최종 대상자는 291명(남 148, 여 143)이었다. 조사 대상 아동의 학년과 성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그리고 대상아동의 학급 담임교사 10명 중 5명이 학교생활 적응도검사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집단면접(focus group)에 참여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분포

구분	남 (명,%)	여 (명,%)	전체 (명,%)
5학년	69 (46.0)	81 (54.0)	150 (100.0)
6학년	79 (56.0)	62 (44.0)	141 (100.0)
전체	148 (50.9)	143 (49.1)	291 (100.0)

2. 연구도구

유윤희(1994), 배숙진(1998), 김광수 외(2001)등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임정순(1993)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임정순(1993)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검사지'는 김호권(1965)의 '표준 적응 검사지'와 유상철(1982)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 검사지'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초등학교에 알맞게 수정, 보완한 검사지로 임정순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가 .89로서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보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의 내용이 아동의 입장에서 잘 이해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6학년 아동 3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하였고, 수정된 문항을 교사 2명과 함께 검토하여 최종 수정하였다.

학교생활 적응검사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4가지 하위영역(각 영역 당 8문항,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아주 그렇다"의 5단계 반응을 하게 되어 있고, 각 문항 반응 당 1-5점으로 배점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하고 낮을수록 부적응으로 규정된다. 각 영역별 문항 번호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하위 영역의 신뢰도 계수와 문항번호

하위영역	신뢰도 계수	문항번호
교사관계	.69	1, 5, 9, 13, 17, 21, 25, 29
교우관계	.74	2, 6, 10, 14, 18, 22, 26, 30
학교수업	.74	3, 7, 11, 15, 19, 23, 27, 31
학교규칙	.65	4, 8, 12, 16, 20, 24, 28, 32
학교적응 전체	.86	

(※역채점 문항 : 15, 21, 25, 26, 27, 28, 30, 31)

3. 연구의 절차 및 자료의 처리

본 연구를 위해 2007년 4월 초 인천시의 D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담임교사의 안내에 따라 실시되었고, 검사지에는 후에 담임교사가 아동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2.0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한 후 점수 분포를 보고 잠정적 부적응 점수를 산출하였다. 30명이 정원인 학급에서 약 5%의 아동이 부적응 아동일 것으로 가정하고,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고 적응총점 및 각 하위영역별로 전체 점수분포에서 하나의 영역이라도 하위 5%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잠정적 부적응 학생으로 가정하였다. 잠정적 부적응 아동을 선별한 뒤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검사의 결과를 제시하여 교사가 가지고 있는 부적응 아동에 대한 정보와 검사의 결과가 일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사의 평가는 점수화 하지 않고 검사의 결과를 보고 하위 점수를 받은 아동을 위주로 아동들의 생활 습관이나 특이할만한 점에 대해 구술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검사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 보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한 담임교사 5명과 집단면접(focus group)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학교생활적응검사의 예언타당도

가. 기술통계치

연구 대상 아동들의 성별·학년별 학교적응 총점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남학생들보다 더 높았고($F=7.970$, $p=.005$),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의 학교생활 적응 점수가 6학년보다 높았다($F=6.125$, $p=.014$). 학교생활적응검사는 아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대상에 포함된 학생들의 전반적인 적응상태를 진단하기는 어렵다. 단, 문항평균으로 볼 때, 3.5점 전후의 점수로 5점 Likert 척도에서 보통보다 조금 높아, 이 연구에 포함된 학생들의 적응상태는 특히 떨어지거나 높지 않아 보통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적응 점수의 분포는 <표 4>의 경도와 첨도의 지표로 볼 때 정상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성별, 학년별 학교생활 적응 총점

학년	5학년			6학년			계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남	69	110.55	16.52	79	109.28	12.58	148	109.87	14.51			
여	81	118.21	17.03	62	111.08	16.53	143	115.12	17.13			
계	150	114.69	17.17	141	110.07	14.43	291	112.45	16.04			

<표 4> 학교생활적응 점수의 분포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총점
평균	28.94	28.73	27.75	26.69	112.45
표준편차	5.19	5.73	5.54	4.90	16.04
경도	-.051	-.623	.168	-.035	.112
경도의 표준오차	.138	.138	.138	.138	.143
첨도	-.557	.339	-.503	-.149	-.466
첨도의 표준오차	.276	.275	.274	.275	.285

나. 잠정적 부적응 아동 선별

이 연구의 목적은 검사지가 부적응을 가려내기에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먼저 잠정적이지만 각 점수분포의 하위 5%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적응 점수로 설정하였다. 각 하위 영역 및 총점의 잠정적 부적응 점수의 범위는 다음 <표 5>와 같고, 잠정적으로 산출된 학교생활 부적응 점수를 기초로 하여 연구 대상 학급 아동들의 개인별 점수에서 부적응 아동을 선별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 잠정적 부적응 진단 점수(해당 점수 이하)

학교적응 영역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총점
부적응 진단 점수	20	18	19	18	87

<표 6> 학급별 잠정적 부적응 아동 선별 결과 (단위: 명)

학년	반 (연구대상인원)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총점	계
5	A (31)	3	2	3	·	4	6
	B (30)	1	1	3	2	3	4
	C (29)	1	·	·	·	·	1
	D (29)	1	1	·	1	·	3
	E (31)	1	2	·	·	·	3
6	F (29)	2	·	2	1	2	5
	G (28)	·	·	1	3	·	2
	H (31)	·	1	3	1	·	5
	I (27)	3	2	2	2	1	7
	J (26)	1	4	1	1	4	6
계	(291)	13	13	15	11	14	42

(※ 각 학급별 부적응 아동 합계에서 하위 영역 및 총점에서 2개 이상 부적응 점수를 나타내는 경우는 1명으로 처리함.)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영역 이상에서 잠정적 부적응으로 진단되는 아동들은 학급별로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까지로 나타났으며 전체 인원 291명 중 총 42

명으로 나타났다. 잠정적 부적응으로 판별된 42명 중 하위영역 한 영역에만 부적응 점수를 나타내면서 총점은 부적응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은 27명이었고, 나머지 15명은 하위 영역 및 총점에서 동시에 2개 이상 부적응 점수를 받은 경우였다.

2. 예언타당도 탐색

예언타당도의 준거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에서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면담하거나 관찰한 결과를 사용하고자, 연구자는 연구대상 아동의 담임교사와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6학년 담임교사 5명을 집중집단(Focus group)으로 정하고 학교생활적응 검사의 결과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과 의견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연구자는 먼저 집중집단의 구성원이 된 담임교사에게 해당 학급 아동 개개인의 학교생활 적응 총점과 각 하위 영역별 점수가 나와 있는 결과지를 제시하였다. 담임교사들은 아동의 적응점수와 현재까지 교사로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된 각 아동에 관한 정보를 비교해 보았다. 연구자가 제시한 검사결과표에는 잠정적 부적응 아동으로 선별된 아동의 점수가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연구자는 담임교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검사결과지를 살펴볼 것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아동과 겪은 특별한 사건들과 교사가 관찰한 아동의 언행이나 생활 습관 등을 검사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교사들은 일정한 형식 없이 학급 아동들 중 잠정적으로 부적응이라고 선별된 아동들을 위주로 평소 관찰한 내용을 구술하였으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주제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가. 교사평가와 검사결과가 일치되는 경우가 불일치되는 경우보다 더 많다.

면접 대상이 된 6학년 담임교사의 학급 아동 점수 중에 잠정적 부적응으로 선별된 아동들의 점수는 하위 영역별로 중복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모두 37개의 점수이다. 이 중 28개의 점수는 교사의 평가와 일치하는 경우였고, 나머지 9개의 점수는 교사는 하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검사의 점수는 낮게 나온 의외의 결과였다. 각 학급의 잠정적 부적응 아동들의 점수를 보고 교사는 평소 관찰이나 면담을 통해 알게 된 각 아동의 성격, 습관, 행동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교사가 제시한 각 하위 영역별 잠정적 부적응 아동의 행동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감정적 부적응 아동에 대해 교사가 관찰한 행동 목록

부적응 하위 영역	교사가 관찰하거나 면담한 사례
교사관계	교사에게 꾸중을 듣거나 지적 받는 일이 잦다. 교사가 자신을 나쁘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와의 대화에 관심이 없어 보이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벌을 받거나 꾸중을 듣는 와중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교우관계	친구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친구의 행동에 대해 불만이 많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친구에게 직접 따지거나 불만을 이야기 하지 못한다. 다른 친구들이 놀리거나 괴롭힌다.
학교수업	수업 시간 중 낙서를 하거나 딴 짓을 많이 한다. 학업 성적이 하위권이다.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다. 학습에 대한 의욕이 없다.
학교규칙	지각이 잦다. 욕을 하고 친구들과 자주 싸운다. 복도나 교실에서 뛰어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규칙을 왜 지켜야 하는지 모른다. 규칙은 알고 있지만 자기의지대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학급이나 학교에 규칙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에서 측정하고자하는 하위영역의 내용과 교사의 평가는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 나머지 9개의 점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아동의 부적응을 제대로 측정하였지만 교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경우인지, 아니면 부적응의 심각성이 높지 않음에도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검사지 자체의 문제인지는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나. 교사관계, 학교규칙에서의 일치도가 높다.

학교생활적응의 4가지 하위 영역 점수 중에 교사의 평가와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이

는 영역은 교사관계와 학교규칙 영역이었다. 그 이유는 교사에게 지적을 많이 받거나 규칙을 어기는 행동은 쉽게 눈에 띄고 교사에게도 특정한 사건이나 그 횟수로 기억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동이 학급이나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사가 아동의 외현적 행동을 관찰하면 쉽게 평가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점수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사관계의 점수에 대해 교사들이 생각하는 바는 다양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교사가 아동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아동의 행동을 바로잡아 주기 위한 것인데, 교육적 행동이 자칫하면 아동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또는 ‘선생님은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겠다.”

“교사에게 지적을 많이 받지만 교사관계 점수가 높게 나오는 아동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동의 성격이 긍정적인 경우로 보여 진다.”

“아동이 교사의 지적이나 꾸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으려면 평소 교사가 아동들을 대할 때 충분히 아동들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거나, 아동들의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할 것 같다”

교사관계의 점수는 교사에게 꾸중을 많이 듣는 아동인 경우에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 교사 입장에서 아동과 교사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준거로 반복되는 꾸중이나 지적의 경험을 떠올렸다. 교사가 꾸중을 하게 되는 이유는 수업태도가 나쁘거나 학교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또 교사들도 교육적 의도와는 다르게 꾸중과 지적이 아동과 교사의 관계를 멀게 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교사관계나 학교 수업, 학교 규칙의 영역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교사관계에서 잠정적 부적응으로 진단된 13개의 점수 중 동시에 학교 규칙도 부적응인 경우는 3개, 동시에 학교수업이 부적응인 경우는 2개였다. 부적응 점수는 아니지만 교사관계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교사관계의 점수는 낮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교사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떠한 요소가 아동과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다. 교우관계 점수가 낮은 아동 중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경우가 많다.

교우관계에서 잠정적으로 부적응으로 선별된 아동들 대부분은 학급의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보다는 혼자서 놀기를 좋아하거나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과 생각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반에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친구 관계로 특별히 힘들어하거나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으나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은 많다.”

“조용한 아이들은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관심을 주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종합해 보면 교우관계 점수가 하위인 아동들은 대부분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격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성격이 또래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래 관계가 아동의 학교 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아동이 학급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는지의 여부는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관찰하고 확인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진다.

3. 학교생활적응검사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종합·분석

이 연구는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학교생활적응검사의 개발을 위한 예비 조사를 위해 실시되었다. 실제로 검사를 활용해 본 교사들에게 학교생활적응검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검사지의 활용 가능성 및 보완할 점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가. 검사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

면접에 참여한 교사 모두 이러한 검사지가 개발되어 있고 사용하기가 간편하다면 활용해 볼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본 것을 토대로 검사지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관계, 학교규칙 영역은 교사가 판단하고 진단하기에 비교적 쉬운 부분이지만 교우관계나 학교수업의 영역은 교사가 관찰이나 면담을 통해 정보를 얻기에는 비교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검사지 결과에서처럼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동인 경우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아 교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지의 결과는 아동들의 적응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학기 초에 아동들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을 때에 검사지를 사용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아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선별하여 향후 생활 지도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지만으로 아동을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아동을 관찰 하거나 면담할 때의 보조 자료로 사용한다면 교사가 아동을 더 잘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해 보면 학교생활적응검사는 학교적응 하위 영역 중 교우관계와 학교수업의 적응도를 알아보는 데에 유용할 것이며, 아동에 대한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얻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검사지가 담임교사로서 아동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있고 심층적으로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면 활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나. 보완점

이 연구의 대상자가 된 교사들은 직접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 검사를 실시 하였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교사들에게 검사 활용자로서 검사의 문제 점이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 앞으로 개발될 검사지의 형태 등 학교생활적응검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학년의 경우 아동이 검사지의 문항에 답할 때에 솔직하게 답하기 보다는 교사에게 보여 지는 것을 인식하고 답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로 답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최소화하려면 검사 실시 전에 아동에게 검사의 목적이나 솔직한 응답의 태도가 필요함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검사지의 문항에서도 그러한 요소가 없는지 정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보통 아이들은 5점 척도 문항에서 ‘보통이다’로 답하는 경우가 많다. 검사지에 응답하는 방식이 일률적인 5점 척도보다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보기의 예를 주고 고르게 하면 아동들이 훨씬 응답하기가 쉬울 것이다.”

“검사 실시 후 각 데이터의 분석 자료가 한눈에 쉽게 들어오면 좋겠다. 그리고 검사의 채점이나 점수의 해석방법에 대한 매뉴얼도 함께 제시되어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검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은 검사지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문항을 특정한 상황으로 제시하여 아동들이 자신의 행동 경향을 더 쉽

게 파악하여 응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검사의 활용 방법과 결과의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검사지의 활용자는 학급의 담임교사라는 것을 전제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담임교사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아동의 응답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검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채점이나 결과의 해석 방법이 함께 제시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논의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학교생활 적응상의 문제를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아동을 선별할 때에 관찰이나 면담의 방법 외에 검사지를 사용하면 보다 다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아동 지도나 학부모 상담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검사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 이 연구에 사용된 학교생활적응검사는 학급의 담임들이 아동을 관찰한 결과를 준거로 하였을 때 비교적 예언타당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연구결과의 논의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지에서 감정적 부적응으로 선별된 아동들에 대해 교사들의 진솔한 내용은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가 불일치하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이는 향후 표준화된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검사의 문항을 개발할 때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지 문항과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부적응 행동목록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검사의 하위 영역 중 교사관계, 학교 규칙에서 검사 결과와 교사평가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관계에서는 교사에게 꾸중을 많이 받는 아동들이 점수가 낮게 나왔고, 학교규칙에서는 학급이나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아동들이 점수가 낮게 나왔다. 이는 검사지가 아동의 학교생활 중 외현적 행동에 대해서 비교적 잘 측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모와 교사들은 내재적 문제를 보이는 아동보다 외현적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증상이 더 심각하고 유별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영아, 1996)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즉 내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동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수준과 교사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쉽게 지각하지 못하는 적응영역에서 부적응 아동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교우관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아동들은 교사가 보기에 적응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조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교우관계 영역의 점수가 아동의 내향/외향적 성격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교우관계는 학교적응의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Berndt & Hawkins, 1991; Bhattacharaya, 2000), 교사들이 문제로 지각하지 않는 것이다. 내향적인 성격의 아동은 드러나는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성격유형과 자기효능감, 정신건강, 여가활동의 차이를 연구한 정갑순(1999)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은 외향적 학생이 내향성 학생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고, 내향성 학생은 외향성 학생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담임교사들이 학급의 아동을 관찰하면서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아동을 발견한다면, 단순히 아동의 '성격이 내향적이다'라고 인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동이 또래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한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넷째, 검사는 아동의 학교 적응 영역 중 교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아동의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거나 아동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인수의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아동 한 명 한 명에 대해 관찰하고 면담한 결과를 일일이 기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 기록하여 누적하더라도 담임교사의 주관에 따라 아동 각각에 대한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한 면을 보완하는 도구로서 담임교사들은 검사지의 활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검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응답이 더 신뢰로워야 할 것이며 그렇기 위해서는 문항의 형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고, 교사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제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교사들은 검사에서 아동의 특성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으며, 교사의 입장에서 검사지에 나타나는 정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검사지 형식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척도 중 하나를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그래서 국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학교생활적응 검사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는 제한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국내 연구자들이 개발한 다른 척도들도 분석하여 하나의 검사만으로 추출되기 어려운 학교적응의 다른 요소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아동들은 인천광역시의 특정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로서 대표성을 띠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교생활적응검사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는 표집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의 현황을 알아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검사의 예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담임교사의 아동 관찰 결과를 준거로 사용하였다. 검사결과와 교사의 아동평가를 비교함에 있어 면접이라는 질적 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교사들은 검사 결과를 먼저 보고 아동에 대해 관찰한 결과를 떠올렸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미리 본 검사지의 점수가 아동에 대한 이미지나 정보로써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의 예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함께 병행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이 연구에 사용된 '학교생활적응검사'는 4월 학기 초에 실시되었다.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양상이 고정적이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염두해 둔다면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실시한 검사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담임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검사지를 개발하여 표준화할 때에 검사의 활용 시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 진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 나타난 학교적응점수는 남·여별로 총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학급 내에서의 차이에만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남·여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잠정적 부적응 점수를 산출하였다. 남·여의 점수를 분리하여 잠정적 부적응 점수를 산출한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부적응 점수를 다르게 산출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는 원래 연구의 목적으로 제작된 검사이기 때문에 교사가 각 아동의 적응점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교사 스스로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아동의 적응/부적응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검사의 사용 방법이 간편해야 하고 채점 결과 처리, 평균이나 순위 산출 등이 용이해야 할 것이다. 현재 표준화 되어 있는 지능검사나 인성검사 등 상담센터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검사의 결과 및 해석을 받아보는 방식의 검사는 검사의 질은 높지만 검사의 실시 절차가 까다로워 학급의 담임이 필요에 따라 실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교실에서 교사가 필요할 때에 간편한 방법으로 학급의 아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검사지의 활용은 교사들의 아동에 대한 이해 및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의 진단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명희(2000).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아동, 교사 평가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구본용, 김택호, 김인규(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김광수(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현황과 지도방안. **교육논총**, 17, 1-15. 전북: 전주대학

- 교 교육문제연구소.
- 김광수, 장승현, 조병만, 임은미(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논총**, 16, 301-333. 전북: 전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김영숙(1975). 학령전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교사아동전문가의 지각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영아, 김소라, 오경자, 하은혜(1996). 한국의 부모와 교사들의 아동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5(1), 45-53.
- 김하경(1988). 국민학교 어린이의 부적응 행동지도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 김형호(1979). 아동들의 부적응에 관한 일 연구. 전주교육대학논문집, 15, 169-186.
- 문은식, 김충희(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박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 박명주(2001). 아동의 정서지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 배숙진(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 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신옥순(2002). 초등학교 교사의 학부모 경험. **교육논총**. 19, 202-203, 인천: 인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 유윤희(1994). 학교적응 불안, 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성숙(2005).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통하여 살펴 본 학습장애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이인우(2003). 초등학생의 문제행동별 통제 필요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이호선(2000). 아동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임정순(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임종덕(2001). 초등학교 아동의 부적응행동 개선을 위한 교사의 지도실태 분석.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 정명희(198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심여자대학교.
- 차유림(2001).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한국심리학회(1998). **심리검사 제작 및 사용 지침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홍강의, 홍경자(1986). 국민학교아동의 행동문제연구(Ⅱ). **서울의대 정신의학**, 11(1), 39-47.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erndt, T. J. & Hawkins, J. A.(1991). The effects of friendship on student's adjustment after the transition to junior school. ERIC Document Reproduction No. ED 255-786.
- Bhattacharaya, G.(2000). The school adjustment of South Asian immigrant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dolescence*, 35(1). 77-86.
- Shaffer, D. R. & Kipp, K.(2006).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Abstract

**Exploring the Applicability of the School Adjustment
Test for Children**

Kim, Yeong-Eu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this study, a preliminary study has been made to check the availability of examination after selecting one among the criteria to adaptation of school life, in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for a tool in order to collect multi-dimensional information about children. An examination has been done with the survey target of 291 pupils in the fifth and sixth grade in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Incheon. And the focus group with the teachers in charge of each class was undertaken to check the availability of the examination. As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37 was the average score of children diagnosed as the category of temporary maladaptation in terms of the score of 4 sub-scales of school adaptation and their total scores, and 28 was the score which corresponds to the assessment of teachers. The results of examinations and the evaluations of teachers were proved to be highly correlated. Lastly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meaning of these findings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ies.